

# 지식기반 국가선진화 전략

김성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

## 요약

최근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 미래의 불확실성과 위협이 커져가는 실정에서 미래예측에 기반한 국정운영 시스템과 함께, 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식기반의 미래예측 인프라가 필요하다. 또한 기술 발달과 사회 환경의 미래 변화가 국가의 경쟁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혁신적·창의적 노력이 성공하고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 결국, 지식기반과 국정운영의 융합으로 지속가능한 국가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술(공급), 사회(수요), 정책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지식기반 국가선진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식기반 국가선진화 전략은 국가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국정운영 인프라(Governance Infra), 지식기반 인프라(Knowledge Infra), 멘탈 인프라(Mental Infra)로 구성되어 있다.

## 1. 서론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 최대 보험사인 AIG와 제4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한 금융위기 등으로 세계는 물론 국내의 경제적 위기감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과 변화의 시기일수록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건이

다.

예로부터 세계 국가와 기업들은 미래에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여왔다.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생존과 경쟁 우위를 잡기위한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미래의 선점을 노리는 국가와 기업들에게 정확한 미래예측은 필수전략인 듯하다.

미래예측을 통한 전략 수립은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준비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의 발달과 사회 환경의 미래 변화를 국가의 경쟁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개발과 상용화 준비를 마치고도 법제도 미비로 인해 신규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거나 세계적인 기술과 산업의 시장 선점이 늦어져 기업과 국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미래를 대비한 국가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맞춰 정책적·제도적 체계를 정비하여 지원해나간다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해 원하는 미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미국, 핀란드 등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생존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예측 연구를 오래전부터 수행해오고 있다. 선진 각국은 10년, 100년 이후의 국가를 예상하는 미래예측 프로젝트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미래전략 수립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미래 대비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기술, 사회, 정책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미래지향적 지식기반 국가선진화 전략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식기반 국가선진화 전략으로 미래비전

을 확립하고 일관된 정책 수립, 안정적인 정책 집행을 포함한 '미래지향적 선진 국정운영 인프라(Governance Infra)', 국가차원의 정보 분석·예측을 통해 위기관리 및 가치창출의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 지식기반 인프라(Knowledge Infra)', 창의와 신뢰에 기반한 미래비전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미래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멘탈 인프라(Mental Infra)'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새로운 국가정보화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 SWOT 분석을 통해, 위의 세 가지 전략과제 중에서 특히 국가 지식기반 인프라 미래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

## II. 국내외 미래전략수립 현황

1990년대 초반 해도 핀란드는 소련의 붕괴로 인해 북유럽이 동반 붕괴되는 혼란을 맞아 경제 침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핀란드는 스웨덴과 러시아 등 강대국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목재 외에 이렇다 할 국가적 자원도 없어 성장가능성은 낮아보였다. 그러나 1993년 당시 경제성장률 -6.2%, 실업률 18%로 어려움을 겪던 핀란드가 지금은 국가경쟁력 세계 선두 국가이며, 1인당 국민소득(GDP)도 4만 달러에 육박하는 강소국으로 성장하였다. 여기에는 미래를 예측하고 전략방향을 제시한 핀란드 정부와 노키아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993년 핀란드 국회는 경제·사회적 위기상황에서 미래상임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Future)를 설치하였다. 정부가 15년 후 미래예측을 통해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여 국회와 국민에게 제시하고, 미래상임위원회가 이를 총괄하도록 법으로 제정하였다. 미래상임위원회는 설립 초,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연구와 자문을 거쳐 정보통신(IT) 산업의 성장가능성을 예측하였다. 이에 펄프와 제지, 케이블, 자동차 타이어, 신발 등 10개가 넘는 품목을 생산하던 노키아를 설득해 휴대폰 제조를 집중 산업으로 권고하고, 법과 제도를 개편하여 휴대폰 산업에 용이하도록 지원하였다.

이후 노키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휴대폰 시장점유율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세계 휴대폰 업계의 2008년 2사분

기 실적발표를 보면 노키아의 시장 점유율은 41%로 2위 삼성 15.4%에 비해 2배가 넘었다. 2007년 1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노키아의 매출액은 411억 2100만 유로(약 50조 원)를 기록해 핀란드의 2007년 정부 예산인 404억 8200만 유로를 앞질렀다고 한다. 정부의 미래예측과 정확한 장기전략 제시, 성장 동력의 발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정 운영체제의 개선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

블모지의 사막에서 초특급 7성(星) 호텔인 버즈 알 아랍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떠오르고, 팜 아일랜드라는 인공 섬 프로젝트 등으로 세계의 부호들을 끌어 모으는 기적을 만들어낸 두바이는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경우이다. 두바이에서 1966년 석유를 발견했을 때, 2020년쯤이면 매장된 석유가 고갈되어 위기를 맞을 것을 예측하고, 2011년까지 석유의존 경제구조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원유의 경제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부동산, 관광, 무역, 금융 영역으로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영국의 경우는 총리 직속기관인 미래전략처(The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미래사회 예측에 기초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국가적 이슈와 국가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미래전략처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일관된 미래전략과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일본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핵심전략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미래 기술 및 사회발전에 초점을 둔 미래예측 활동을 수행중이다. 1970년대부터 '일본의 30년 기술미래예측'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매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 관련 예측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총리 자문기관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2030년 미래모습과 미래상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담아 '일본 21세기 비전('05년)'을 제시한바 있다.

이렇듯 이미 선진국들은 국가 미래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대비한 국정운영추진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국정운영에 활용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영국의 미래전략처(Strategy Unit), 미국의 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핀란드의 미래상임위원회(Committee for the Future) 등이 그 예들이다.

우리나라는 미래예측과 전략수립을 강화하고자 2008년 5

월, 대통령 직속 미래전략 중추기구로서 '미래기획위원회'를 설립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의 축으로 미래를 설계해가고 있다. 녹색성장을 통해 다음 세대가 10년, 20년 먹거리를 만들고 환경오염을 줄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겠다는 미래 비전의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향후에는 범국가차원에서 미래예측에 기초한 국가선진화 전략을 훨씬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해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표 1> 주요 국가별 미래전략기구

	영국	미국	핀란드
기구	미래전략처(SU) 총리직속	국가정보위원회(NIC) (DNI소속)	미래상임위원회 (국회)
역할	· 총리에 대한 지문과 정책 분석 적보 체제 · 범부처 차원의 국가중장기 관측의 발전전략 마련 · 정책의 범부처 수평적 크로스 컷팅 역할 수행 · 인하우스 싱크탱크 정책분석과 연구	· 인하우스 싱크탱크의 기능수행 · 광범위한 학계, 전문가 등 외부의 싱크탱크와 연계활동 · 국가정보예측중 정보수집, 분석, 리서치 중심 · 고위지도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최상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함	· 예산 책정 등에서 각부처의 미래 전략적 시각 도입의 점검 · 각 부처가 국가미래전략 전체 파악 여부 점검 · 부처간 전략적 협력의 여부 점검 · 총리실과 각부처간 대화를 통해 정책 입안시 장기적인 미래 시각을 부여
특징	· 광범위한 국내외 정책 이슈에 대한 개입 · 국가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각 부처 지원 매트릭스 조직을 통한 각 부처와 유기적 협조 관계 확립	· 전략적 사고에 대한 핵심 개발 · 국내외 최상의 전문가 발탁 연계 · 관련 전문가의 보호관리에 대한 강조	· 15년간의 미래예측에 기반한 장기적인 국가미래전략체시 의무 입법화(4년에 한번 국가 미래 보고서 발간)
시사점	· 국정최고지도자인 대통령 직속 · 범부처 협조 조정 · 장기적 국가 미래전략 · 광범위한 주제(국내외)	· 국내외 전문가들에 대한 발굴과 지속적인 관리 · 인하우스 싱크탱크와 외부 싱크탱크의 연계 협력 · 정책결정자들에게 적합한 최상의 정보제공	· 입법부와 행정부의 미래 전략의 연계 · 장기 미래전략의무 입법화 · 미래전략적 시각의 입법 통제 · 미래전략 수립에 있어서 협동과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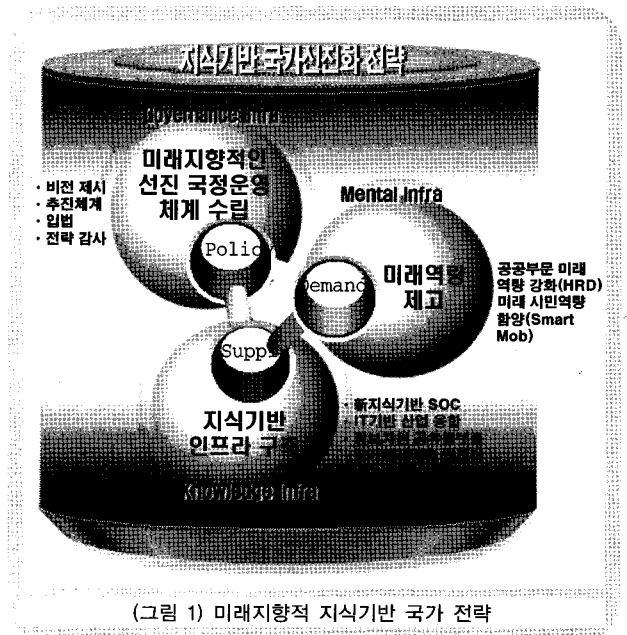
에서 미래예측에 기반을 둔 국가 비전 정립과 미래전략 수립을 주관하는 미래전략기구 구성이 필요하다. 이는 특정 소관부처를 넘어선 광범위한 국내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범부처적인 협조와 연계체제를 마련하고, 정부부처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를 활용하여 국가 지식기반인프라· 미래예측인프라의 구축 선행이 필수이므로, 이를 미래전략기구의 핵심 업무로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 지식인프라 조성을 통해 미래예측 기반 선진 국정운영 및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미래예측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하고 예산 수립·집행을 점검하는 생산적 감사체계 및 중장기적 미래 환경 변화를 고려한 입법 체계 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국가 선진화를 위해 IT 기반의 미래 가치창출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시각에서 '국가 지식기반인프라 구축'에 도 힘을 쏟아야 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단순 업무정보화에서 탈피하여 지식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 지식 인프라는 방송통신· 콘텐츠· 네트워크 등 광범위한 정보화 관련 인프라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지가 관건이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인프라 구축과 활용이 우리

### III. 지식기반 국가선진화 전략

먼저, 우리나라도 각 부처가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고 정책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입법, 감사 체계를 개선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선진 국정운영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선진 국정운영체제는 우리나라가 유연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미래와 글로벌을 향하여 다양한 도전과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선진 국정운영체제에는 먼저 범정부차원의 중장기적 관점



(그림 1) 미래지향적 지식기반 국가 전략

경제 선진화에 동인이 될 수 있도록 투자가 집중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멘탈(mental) 인프라의 중요성이다. 국가 미래전략과 비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미래 예측 역량, 지식기반 역량, 세계를 향한 글로벌 역량과 같은 미래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식정보사회의 성숙한 시민 의식 제고를 통해 신문화를 창출하고, 지식정보사회의 이점과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을 통해 국가 미래비전을 향한 창의와 신뢰의 선진 문화를 배양할 수 있다.

이렇듯 기술(공급), 사회(수요), 정책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미래지향적인 지식기반 국가선진화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 IV. 국가 지식기반 인프라 미래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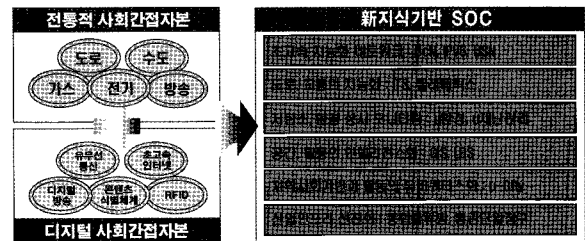
지난 20여년의 정보화 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단순한 하드웨어적 인프라가 아니라 지식기반인프라를 바탕으로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분야, 연구분야를 포함하여 사회 전 분야에서 지식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국가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술과 사회가 융합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사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여건과 국가정보화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는 국가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

인 전략과 추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SWOT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로 ① 新지식기반 SOC, ② IT 기반 산업 융합 촉진, ③ 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④ 국가미래예측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 ① 新지식기반 SOC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비해 SOC(사회간접자본), 교통·물류 경쟁력은 세계 25위로 취약하고(World Bank, 2007), SOC 투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다. SOC의 투자확대 한계를 넘어서고, SOC의 첨단지능화를 통한 국가선진화 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해 '新지식기반 SOC' 구축 과제를 제안한다.



(그림 3) 新지식기반SOC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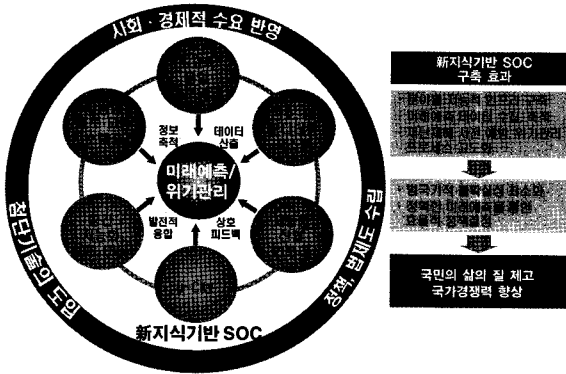
新지식기반 SOC란 기존 사회간접자본과 디지털 사회간접자본의 발전적 융합으로 생성되는 지능형 SOC를 의미한다. 이는 전자정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u-City, u-환경, u-재해·재난 관리, 통합물류 등 지식기반사회의 핵심 공공재로서 국가 성장동력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 방식의 기존 SOC의 양적 확충이 아니라 IT를 융합한 첨단 지능형 SOC 구축으로 질적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IT 융합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적극 육성을 통한 새로운 IT 융합 뉴딜 전략으로 추진할 수 있다. 선도적인 IT 융합 뉴딜 전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전략에도 유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IT)와 기존 SOC의 발전적인 결합을 통해 SOC를 지능화·첨단화된다면 교통, 물류 등 사회 각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민에게 다

<p><b>내부요인</b></p> <p><b>강점(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 수준의 IT 인프라 보유</li> <li>광범위한 IT 내수 기반 및 양질의 전문 인력</li> <li>조선, 자동차, 건설 등 제조 분야의 높은 경쟁력</li> </ul> <p><b>약점(W)</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차별 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인계 미비</li> <li>융합 추진 체계 부재</li> <li>공급 중심의 정보화</li> </ul>	<p><b>기회요인(O)</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기반 인프라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 형성</li> <li>지식기반 인프라 관련 기술의 비약적 발전</li> <li>IT 관련 시장 지속 성장 전망</li> </ul>	<p><b>위협요인(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RICS 등 후발 국가 약진</li> <li>유가 상승으로 비용 증가</li> <li>전 세계적 경기 불황</li> <li>노동/산업 생산성 저하</li> <li>사회적 문제의 다양성/복잡성 증가</li> </ul>
	<p><b>고도화 전략(SO)</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新지식기반 SOC</li> <li>· 전통적 SOC(도로, 항만 등)와 IT인프라를 결합</li> <li>· SOC의 첨단지능화</li> </ul>	<p><b>차별화 전략(S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 기반 산업융합 촉진</li> <li>· 모든 산업분야에서 IT와 융합을 가속하여 새로운 서비스 창출</li> <li>· IT 융합을 통해 사회 현안 해결</li> </ul>
	<p><b>보완 전략(WO)</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li> <li>· 국가적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내 자원을 통합</li> <li>· 국가간 공유플랫폼을 연결하여 공동 범위를 확대</li> </ul>	<p><b>극복 전략(W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미래예측 인프라 구축</li> <li>·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미래예측을 위한 국가 미래예측 인프라 구축</li> </ul>

(그림 2) 국가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 전략 도출을 위한 SWOT 분석

양한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재해재난을 방지하여 안전한 국토 환경 조성과 현 정부가 적극 추진 중에 있는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그림 4) 국가 신지식기반 SOC 연계도

### ② IT 기반 산업융합 촉진

우리나라 경제에 IT가 기여도는 높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제조업을 비롯한 비IT 산업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기존 전통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IT기반의 산업융합은 중요한 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IT 산업에도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IT와 IT산업의 전체적인 활로 개척에 혁신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의 NBIC 전략('02), EU 과학기술예측단의 융합기술 발전전략 연구('04), 일본의 Focus 21('04) 등 세계적으로 IT융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식경제부에서 2008년 706억원을 투자하여 IT융합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새로운 IT융합 신산업 창출 정책에는 국가 발전 핵심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그린홈, 그린 카 외에 2020년 3천조원에 달할 녹색기술 시장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기술·산업분야 도출과 개발 전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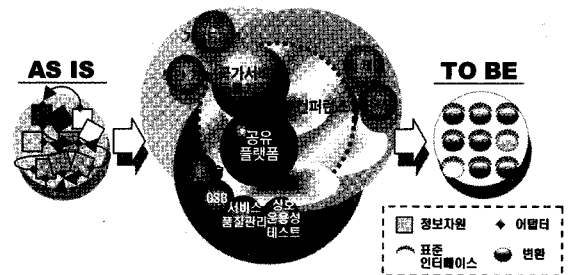


자료 : 지식경제부('08.3), 이명박 대통령 815광복절 경축사('08.8) 참고 재작성

(그림 5) IT 기반 융합 중점영역 및 과제

### ③ 국가 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과 민간에서 보유한 정보자원과 시스템들이 고립적(Silo)으로 구축되어 투자대비 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이다. 공공 기관별 보유하고 있는 서버는 많으나 다양한 제품과 플랫폼의 사용으로 범정부 차원에서의 재사용성과 확장성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데이터, 시스템, 비즈니스 등 가치 있는 국가자원들을 연계하여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 높은 공유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화 기본설계도(EA<sup>1)</sup>) 수립,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OA<sup>2)</sup>)에 기반한 공유기반 설계, 국가 서비스 등록저장소와 공유플랫폼의 구축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림 6) 국가 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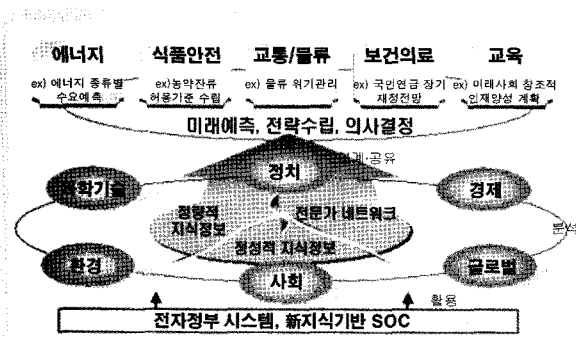
01\_ 정보화기본설계도(EA) : 현재와 목표로 하는 기관의 임무, 수행업무 및 기술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변화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이행계획

02\_ 서비스지향아키텍처(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SOA) : 조직 내·외부의 업무프로세스, 기능 등을 누구나 활용 가능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상호 연결해주는 정보기술 설계 접근 방법론

#### ④ 국가 미래예측 인프라 구축

다양한 정책 이슈들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체계적·종합적인 데이터 축적 및 관리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데이터들이 부처별로 단편적으로 저장·관리되고 있고, 대규모 자료 분석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략 수립이나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이 어렵다.

이에 범국가적으로 생산되는 모니터링 데이터, 통계 등 정형적 정보와 전문가/전문기관의 비정형 지식정보를 수집·축적·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미래예측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미래예측 지원시스템은 국민 생활 안전관리, 에너지 수요예측, 국민건강증진 안전관리, 생활물가 등 국정 현안이 되는 분야의 이상 변화 징후 감지와 종합 상황을 분석하는 '핵심분야별 미래예측시스템'과 국가전반의 지식정보 공유 체계로 구성된다.



(그림 7) 국가 미래예측 지원시스템 개념도

## V. 결 론

본고에서는 기술(공급), 사회(수요), 정책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지식기반 국가선진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첫째, 미래비전을 확립하고 일관된 정책 수립, 안정적인 정책 집행을 포함한 미래지향적 선진 국정운영 인프라(Governance Infra) 수립이다. 범국가적 미래예측에 기반을 둔 국가 비전 정립과 미래전략 수립은 국가의 생존과 지속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다. 수립된 국가 비전을 일관

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기술적인 발달과 사회 환경의 미래 변화를 국가의 경쟁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정책체계와 제도체계 마련이 선행될 수 있는 선진 국정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가 비전 정립과 미래전략 수립을 주관하고 소관부처를 넘어선 광범위한 국내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범부처적인 협조와 연계체계를 갖춘 미래전략기구의 구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차원의 정보 분석·예측을 통해 위기관리 및 가치창출의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 지식기반 인프라(Knowledge Infra) 구현이 필요하다.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를 활용하여 선진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최근 국가정보화 환경은 기술·서비스의 융·복합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정보'를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정보화의 단계에 진입하였다. 지식정보화 환경에 걸맞고, 사회적 IT기여도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국가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과제로서 ① 신지식기반 SOC, ② IT 기반 산업융합 촉진, ③ 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④ 국가미래예측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창의와 신뢰에 기반한 미래비전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미래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멘탈 인프라(Mental Infra) 확립이 필요하다. 국가 미래전략과 비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미래예측 역량, 지식기반 역량, 세계를 향한 글로벌 역량과 같은 미래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식정보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를 통해 신문화를 창출하고, 지식정보사회의 이점과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을 통해 국가 미래비전을 향한 창의와 신뢰의 선진 문화를 배양할 수 있다.

상기의 세 가지 전략을 아우르는 지식기반 국가 선진화 전략 프레임워크를 그려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국정운영 인프라, 지식기반 인프라, 멘탈 인프라 전략의 실행을 통해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기반 국가선진화 전략의 실천을 통해 다가올 국가의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수립한다면, 우리도 미래의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그림 8) 지식기반 국가선진화 전략 프레임워크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참고 문헌

- [1] 광복 63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대통령 경축사,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 2008.8.
- [2] 국가미래정책포럼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가미래전략 Brief 제1호, 지식기반 국가선진화 전략”, 2008.9.24.
- [3] 국가미래정책포럼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가미래전략 Brief 제2호, 선진국의 미래전략기구 분석과 시사점”, 2008.10.10.
- [4] 국가미래정책포럼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가미래전략 Brief 제4호, 일본의 국가미래전략 분석과 시사점”, 2008.11.17.
- [5] 김성태, “또다른 미래를 향하여-국정관리를 위한 미래 예측과 미래전략”, 법문사, 2007.11.
- [6] 손민선, “노키아는 철용성인가”, LG경제연구원, LG Business Insight, pp. 37-44, 2008.9.10
- [7] 유수근, “IT를 기반으로 한 융합 정책 방향”. 『FKII Digital 365』, 여름호, 2008.
- [8] 최홍섭, “두바이 기적의 리더십”, W미디어, 2006.8.17.
- [9] 중앙일보 “강소국 안에 초강기업”, 2007.01.27.

- [10]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http://www.dni.gov/nic/NIC\\_home.html](http://www.dni.gov/nic/NIC_home.html)
- [11] 영국 미래전략처,  
<http://www.cabinetoffice.gov.uk/strategy>
- [12]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 <http://www.keizai-shimon.go.jp>
- [13] 핀란드 미래상임위원회,  
<http://web.eduskunta.fi/Resource.phx/parliament/committees/future.htm>
- [14] Readers Digest, “Living Green, Ranking the best (and worst) countries.” 2007.10. ([www.rd.com/your-america-inspiring-people-and-stories/greenest-locations-on-the-globe/article45585.html](http://www.rd.com/your-america-inspiring-people-and-stories/greenest-locations-on-the-globe/article45585.html))
- [15] World bank, “The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s 2007”, 2007.

**약 력**



1982년 서울대학교 문학사  
 1985년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학교 정치학 석사  
 1989년 미국 조지아대학교 행정학 박사  
 1995년 - 1996년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사업지역사업 추진협의회 위원장  
 1999년 - 2002년 한국지역정보학회 회장  
 2001년 - 2003년 대통령직무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  
 2005년 - 2008년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원장/행정대학원 원장  
 2003년 - 현재 세계전자정부평가위원회 위원장  
 2007년 - 현재 (사)국가미래정책포럼 이사  
 2008년 - 현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원장  
 2003년 홀조군정훈장  
 관심분야: 전자정부와 전자서비스, 정보정책, 디지털산업정책, 정보산업, 방송통신 융합, 미래예측, 국가정보화, 지식기반사회, 지식인프라 등

